

“韓, AI 경쟁력 갖춘 시장... AI 기본법으로 제도적 틀 마련”

앤스로픽, 서울에 공식 사무소

기자간담회에서 韓 사업전략 발표
기술정책·운영 아우르는 조직으로
기업고객·개발자 커뮤니티 지원

초고성능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를 개발한 앤스로픽이 한국에 공식 사무소를 낸다. 높은 개발자 수요와 반도체, 풀스택 AI 경쟁력을 갖춘 한국을 전략 시장으로 삼고, 국내 기업과 스타트업, 연구기관을 아우르는 AI 생태계 공략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앤스로픽은 1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기업, 연구기관, 개발자 커뮤니티 등 한국 사업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크리스 차우리 앤스로픽 인터내셔널 총괄과 최기영 앤스로픽 한국 대표가 참석했다.

크리스 차우리 앤스로픽 인터내셔널 총괄은 “한국은 AI 기본법을 통해 AI의 개



1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크리스 차우리 앤스로픽 인터내셔널 총괄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발과 활용이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며 “이같은 공동된 철학이 우리가 한국에 진출한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앤스로픽은 한국을 정책, 개발자 수요, 반도체 등 경쟁력을 갖춘 시장으로 평가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세계 3대 AI 강



기자간담회에서 최기영 앤스로픽 한국 대표가 국내 사업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조민선 기자

국 도약을 목표로 관련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개발자들의 클로드에 대한 관심도 높다. 또 국내 기업은 메모리 반도체와 AI 인프라를 구성하고,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풀스택 역량을 갖춘 것에 주목했다.

국내 사업 전략의 핵심은 기업 고객·개발자 커뮤니티 지원이다. 최기영 대표는

“한국은 기술 업무와 창의적 업무에서 클로드를 사용하는 비중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 상당히 높은 시장”이라며 “클로드를 시험적으로 사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업무에 깊이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앤스로픽 경제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 대상 116개국 가운데 1인당 사용량은 12위를 차지했다.

앤스로픽은 서울 오피스를 영업 거점이지만 기술·정책·운영을 아우르는 전담 조직으로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국내 기업의 AI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과 기술 엔지니어링 인력을 확충하고, 고객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인력과 운영·정책 담당자도 배치한다.

또 클로드와 클로드 코드의 한국어 성능을 개선하고 한국 시장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사 엔지니어링·리서치 조직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국내 규정과 기업의 데이터 관리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한국 내 인프라 구축과 데이터 레지던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텔레콤 등 한국 기업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AI 안보 프로젝트 ‘프로젝트 글래스wing’에 관련한 질문이 집중됐다. 그러나 앤스로픽 측은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에 따른 접근 차단 여부, 추가 참여 기업 및 공개 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가능한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달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다만, 미국 정부가 해킹에 악용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문제 삼은 ‘탈옥’에 대해 크리스 차우리 앤스로픽 인터내셔널 총괄은 “탈옥 문제는 최근 6개월 내 출시된 다른 모델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제한적 사례”라며 “수출통제가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지난 12일(미국 동부시간) 트럼프 행정부는 앤스로픽의 최첨단 AI 모델인 ‘미토스5’와 ‘페이탈5’에 수출통제 조치를 내렸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e스포츠, 콘텐츠 산업 도약... 2030년 시장규모 9조 기대

올해 규모 약 7조8000억 전망
중계권, 광고 등 수익모델 다변화

LoL 누적상금 1위 페이커 이상혁
상위 10명 중 8명 한국선수 차지

글로벌 e스포츠 시장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오는 2030년 시장 규모가 9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시장 확대와 함께 프로게이머의 영향력도 커지는 가운데, 리그오브레전드(LoL) 누적 상금 순위에서는 T1 소속 페이커 이상혁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며 한국 e스포츠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18일 독일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e스포츠 시장 규모는 51억3000만달러(약 7조8000억원)로 전망



T1 이상혁(페이커)가 지난 3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치지직 톨파크에서 열린 2026 LoL 챔피언스 코리아 개막 미디어데이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됐다. 2017년 11억8000만달러와 비교하면 9년 만에 4배 이상 성장한 규모다.

스태티스타는 글로벌 e스포츠 시장이 2027년 54억달러, 2028년 56억7000만달러를 거쳐 2030년에는 62억달러(약 9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게임 산업이 단순 소비를 넘어 중계권, 광고, 콘텐츠, 스폰서십 등 다양한 수익 모델을 확보하면서 e스포츠 역시 독립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게임사들이 국제대회 운영을 확대하고, 플랫폼 기업들도 e스포츠 중계와 콘텐츠 확보 경쟁에 나서면서 시장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선수 개인 성과를 보여주는 누적 상금 순위에서는 종목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난 2월 기준 글로벌 e스포츠 선수 누적 상금 1위는 도타2 선수 노테일 요한 스타인으로 집계됐다. 누적 상금은 718만달러에 달했다. 이어 제락스 예세 바이 나이가 649만달러, 미포슈가 아로슬라프 나이테노프가 623만달러를 기록했다.

상위권 대부분은 도타2 선수들이 차지했다. 도타2는 국제대회인 ‘디 인터내셔널’을 중심으로 수백억원 규모 상금이 책정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다른 종목 대비 누적 상금 규모가 큰 편이다. 실제 상위 10명 모두 530만달러 이상 누적 상금을 기록했다.

반면 LoL은 상대적으로 리그 중심 구조가 강하다. 선수들의 수익 역시 대회 상금 외에 연봉과 인센티브, 광고, 후원 계약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LoL 누적 상금 순위에서는 페이커 이상혁이 독보적인 1위를 유지했다.

지난해 7월 기준 이상혁의 누적 상금은 192만2080달러(약 29억원)로 집계됐다. 2위인 롤러 박재혁의 103만5770달러와 비교하면 약 2배 가까운 차이다.

이상혁은 2013년 SK텔레콤 T1에서 데뷔한 이후 10년 넘게 정상급 기량을 유지하며 LoL e스포츠를 대표하는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국내의 팬덤은 물론 e스포츠 산업 전반에서도 상징적인 인물로 평가받는다.

3위는 듀크 이호성, 4위는 중국선수 재카리브 위윈보가 차지했다. 이어 뱁 배준식과 울프 이재완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상위 10명 가운데 8명이 한국 선수로 집계됐다. LoL e스포츠 역사에서 LCK와 한국 선수들이 쌓아온 국제대회 성과가 수치로도 확인된 셈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KT, 부울경 기업에 AX 전략·사례 공유

부산 벡스코서 ‘부산 클라우드 데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고객니즈 지원

KT가 지역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I)을 위한 현장형 전략을 공개한다. KT는 부산 벡스코에서 ‘부산 클라우드 데이 2026’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KT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BIPA)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소재의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AX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과 사례를 공유한다. AI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 효율화, 고객 경험 혁신, 현장 안전 관리 등 노하우를 선보인다.

부울경 지역은 해양·항만·물류, 조선·자동차·중공업 등 주요 산업이 밀집해 AI 업무 전환이 활발한 지역이다. 해양·항만 현장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운영관리와 산업 안전 중심의 체계 고도화가 필요하다. 조선·중공업은 생산 현장에서 IT 인프라를 활용한 AX가 진행중이다.

KT는 송정글로벌허브센터와 김해글로벌

데이터센터, PPP 대구센터 등 주요 지역에 해저 케이블 육양국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아시아와 북미를 잇는 다수의 해저 케이블을 통해 글로벌 연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해저 케이블은 생성형 AI 서비스, 온라인 협업 도구, 스트리밍 등 실시간 트래픽을 수용하고 글로벌 주요 허브와 직접 연결된다.

송정글로벌허브센터는 최대 육양국인 KT 부산국제통신센터와 인접해 있다. 부산에서 별도 경우 없이 해외 데이터센터로 바로 연결되는 구조여서 국제 트래픽 경로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

글로벌 AI·데이터 전문기업과 파트너십도 구축했다.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데이터브릭스 등과 산업별 특화 AX 솔루션을 협력하고 각 지역별 B2B 전문 컨설팅 조직도 보유하고 있다.

KT는 이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플렉스’를 통해 컨설팅부터 보안 강화까지 고객의 니즈를 통합 지원한다. /조민선 기자

SKT, ‘A.X K2’ 연계 독파모 연구 세미나

개발자, 학생 등 200여명 참석

SK텔레콤은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사는 지난 17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사옥에서 개발자, 학생, SK그룹 사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로 진행됐다. SK텔레콤 정예팀은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독파모)를 수행하며 연구해 온 AI 기술의 흐름을 대중과 공유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세미나는 AI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하나의 산업 시스템으로 진화하는가라는 화두를 종합적으로 풀어내는 자리다. 특히 SK텔레콤 정예팀이 어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모델을 개발하는지에 대한 학문적 기반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는 것이 목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서인석 교수가 ‘수학 인공지능: 그

림싸함과 올바름의 차이’를 주제로 발표했다.

세미나는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앞서 1차 세미나에서는 서인석 교수가 수학적 관점에서 AI의 원리를 설명했다. 유영재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의 인공지능 추론 방법과 윤성로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의 AI 모델 생태계 세미나가 차례로 열린다.

SK텔레콤이 개발한 대규모언어모델 A.X K2를 통한 사례 학습도 진행한다. AI가 추론 역량 습득하는 방법, 멀티모달 역량 기반 등을 참여 교수의 발표를 통해 풀어낸다.

실시간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다. 온라인 중계 시청을 원하는 경우 비즈니스 소셜 미디어 링크드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SKT 정예팀은 ‘A.X K2’가 에이전트 기능을 비롯해 모델 활용과 산업 확장에 적합한 성능을 갖출 수 있도록 컨소시엄 차원의 산학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민선 기자

kt HCN 케이블TV 운영 넘어 빌딩 IT설비 관리까지

kt HCN이 그동안 쌓은 방송·통신 인프라 운영 역량을 토대로 기업간거래(B2B) 시장 확장에 나선다.

kt HCN은 대형 백화점과 같은 유통시설을 비롯한 60여개 건물을 대상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 기반을 넓히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kt HCN이 넓히고 있는 분야는 케이블 TV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기반 방송·통신 인프라를 직접 운영한 경험과 최신 전문 장비를 활용하는 사업이다.

kt HCN은 현장 점검을 통해 건물별 설비 구조와 운영 환경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 맞는 관리 방안과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현재 설비 상태를 파악해 장애 우려를 줄일 수 있다.

특히 모바일 기반 점검 솔루션을 활용해 현장에서 점검 내용을 즉시 확인 가능하다. /조민선 기자